

언론중재위원회 2012년도 임시총회 개최

임원과 운영위원 및 시정권고위원 선출



“언론중재제도, 세계 여러 나라에 알려야”

언론중재위원회는 지난 9월 1일자로 중재위원 49명이 위촉됨에 따라 10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2012년도 임시총회를 개최했다.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임기만으로 결원이 된 임원과 운영위원 및 시정권고위원을 선출했다.

부위원장에는 김종량 위원(전북중재부)이, 감사에는 위철환 위원(경기중재부)이 각각 재선출됐다. 또 운영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종량 부위원장, 장진훈(서울 제2중재부), 김정숙(대구중재부), 남부희(경남중재부) 위원 등 4명이, 시정권고소위원회 위원으로는 권일(서울 제2중재부), 한천수(서울 제4중재부), 어경택(서울 제5중재부) 위원 등 3명이 각각 재선출됐다.



권성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“위원회는 처리건수의 비약적 증가라는 양적 성장과 함께 피해구제보도문의 실효성 제고, 손해배상액수의 산정기준 개선,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무료변론 서비스 제공, 중재의 활성화 등 실무개선과 제도발전을 거듭하고 있다”면서, “이는 열린 마음과 공정한 자세로 매 사건마다 최선을 다해 오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 덕분이었다”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.

권 위원장은 또 “언론중재제도가 해외에 수출해도 손색이 없는 훌륭한 제도임에도 널리 확산되지 못한 점이 아쉽다”며, “앞으로 언론중재제도를 세계 여러 나라에 알려 우리 문화와 제도의 수출이라는 새로운 여정을 개척해 나간다면 의미 있는 시도가 될 수 있을 것”이라고 밝혔다.